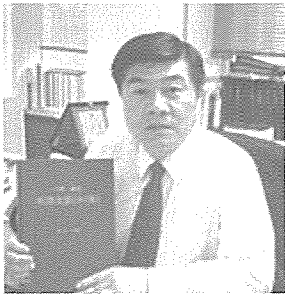


# 화제의 해운인

## 고려해운 컨테이너 마케팅 팀장

### 권오인 부장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받돋움하면서 세계해운시장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해운경기가 중국특수로 정

의될 정도로 중국이 세계해운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운업계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짬을 내 중국의 해운용어[中國, 漢語, 海運用語(中/英)]를 만든 이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고려해운 컨테이너 영업부 마케팅팀장 권오인 부장이다.

특히 이 책은 중국의 해운용어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리와 경제, 사회, 교육 전반을 비롯하여 요리와 차, 술 문화를 총망라한 것으로 중국의 모든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책에서 중국의 술과 음주습관을 기술한 내용을 보면, 중국은 하(夏) 왕조때부터 술을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술은 중국 옛사람들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 사회교육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입증하는 고사성어까지 곁들였다.

- ‘차주부시(借酒賦詩 술을 빌어 시를 짓다)’
- ‘차주서회(借酒抒懷 술을 빌어 회포를 풀다)’
- ‘차주소주(借酒消酒 술을 빌어 근심을 풀다)’
- ‘이주조흥(以酒助興 술로써 흥취를 돋군다)’

또, 차와 음차습관 편에서는 차의 역사와 기능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요리와 음식습관도 전문가 못지않은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소비패턴, 중국의 언론매체 현황과 특징, 중국의 종교현황 등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쓴 권오인 부장은 발간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동기라면, 80년대 중반,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중국에 관한 저명한 책자 ‘Red Star over China-Edgar Snow’에서 중국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쓴 것을 알게 된 게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부장은 또 『고려해운에 입사한지 만 20년이 됐다. 20년을 기념하는 증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회사 창립 50주년에 미력하나마 책 한권을 보태고 싶었다.』며, 이 책이 가까운 이웃, 그러나 결코 가볍게 상대해선 안될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책은 그동안 해운 ON-Line 뉴스매체인 쉬핑데일리에 연재됐었으며, 비매품으로 필요분은 한해 인쇄비 정도(?) 받고 보내준다고 한다.

권 부장은 책을 낼 정도라면 중국어 내공이 대단할 것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부끄럽다. 아직도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원도 다니고 책을 통한 학습도 병행했지만, 특히 회화 발전 속도가 느리다. 최근에는 중국어 관련한 사이트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조금씩 들여다 보고 있다.』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젊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구열을 불태우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직장에 다니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것을 토대로 책을 펴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권 부장의 진짜 내공은 이미 경지에 오른 것처럼 느껴진다.